

[TV]

세 아버지 사랑 받은 바구니 속 아기, 이젠 여대생

시네클럽 '...18년 후'(SBS·10일 새벽 1시5분)



전 세계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세 남자와 아기 바구니(1985년)'의 속편.

남자 셋이 3교대로 공동 육아를 한다는 참신한 발상과 가족에 대한 따스한 시선, 코믹한 상황 설정으로 평론가와 관객의 찬사를 동시에 받은 '세 남자와 아기 바구니(1985년)'는 개봉 후 프랑스 박스오피스에 9개월간이나 몰랐고 1986년 제자 상 3개 부문(작품상, 각본상, 조연상)을 석권했다.

18년 전, 항공사 승무원인 자크, 회사원인 피에르, 만화가인 미셀이 함께 사는 집에 바구니가 배달됐다. 바구니 안에는 바람둥이 기질이 농후한 자크의 아기가 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세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보채는 아기 때문에 밥집을 설치하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세 남자는 차츰 아기에게 정이 들어,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공동 육아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18년 후, 바구니 속의 아기 마리는 대학생이 됐고 세 남자는 여전히 마리의 공동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의 생모인 실비아가 미국인인 존과 재혼해 새 가족과 함께 프랑스 여행을 온다. 세 남자는 존의 가족이 못마땅하지만 한다.

TV 하이라이트

북한 노동자들 외화벌이 나서



KBS스페셜 '달려 버려 왔습니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KBS1·오후 8시10분)은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대북한 고립정책으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해외에서의 외화벌이 사업을 경제활동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문이 단순 노동인력 수출.

북한은 현재 중국, 러시아, 중동 등 전 세계 45개국에 최소 2만에서 3만 명에 이르는 노동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여인의 기구한 삶

일요영화특선 '붉은 수수밭'(MBC·10일 새벽 0시30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홉번째 딸 추알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나귀 한마리도 팔려, 양조장 주인인 문동은 노인에게 시집가는 신세가 된다.

참살 깊게 분해해 준비하고 감유 녹여 참살가 두 번으로 주격으로 휘휘 저어 파이프 관에 부어 3~4시간 굳히면 건 비누가 짜잔! 각각 색깔로 만들어 포장한다.

'잔 다르크' 일대기 그린 역사극

잔 다르크(채널CGV·밤 10시)는 15세기 프랑스의 구국 영웅 잔 다르크의 일대기를 그린 역사극이면서 SF적 요소를 가미한 록 베송 감독의 야심작. 유럽의 가장 처절했던 전쟁이라 일컫는 백년 전쟁, 이에, 프랑스는 영토의 반을 잃고 왕권마저 강타당한다. 한줄기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이 시기, 프랑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적 뿐이었다.

천연 수제 비누 만들기 출동

체형 삶의 현장(KBS1·오전 9시)은 찰떡 자매 여운계와 김형자! 웰빙 수제비누 만들기 위해 출동. 첫 임무, 비누 원료인 아자나무 열매를 짜낸, 맑은 유분하기. 다음은 천연 수제 비누의 원료 구하려 출동. 일주일동안 태운

국제보청기... 오래된 보청기(스타키) 보상판매 30%... 건전지(بات터) 가격인하...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이) (062) 227-9940... 총점 (금남공원앞)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9월

Table with 12 columns: YTN, 시네마 TV, 카툰 네트워크, 코미디TV, Xports, 바둑텔레비전, GTV, 환경TV, EBS1, KBS Prime, MBC MOVIES, XTm, SBS 드라마, SBS 스포츠, MBC Drama, OCN, 수퍼 액션, YTN, 시네마 TV, 카툰 네트워크, 코미디TV, Xports, 바둑텔레비전, GTV, 환경TV, EBS1, KBS Prime, MBC MOVIES, XTm, SBS 드라마, SBS 스포츠, MBC Drama, OCN, 수퍼 액션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TV Channel Schedule Table with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programs like '00 KBS 뉴스', '00 SBS 뉴스', '00 MBC 뉴스' etc.

*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공통)